

# 칸트 「純粹理性批判」에 있어서 순수이성의 안티노미에 관한 고찰

裴 學 洙

## I. 머 리 말

이 논문은 Kant의 비판철학에 있어서 순수이성의 안티노미란 무엇이며 Kant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켰는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보통 안티노미란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정신의 내적 갈등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Kant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사용한 의미는 이러한 보통의 의미보다 제한된 것이다. Kant가 사용한 의미는 세계전체의 인식을 다루었을 때에 우리 이성이 봉착하는 이성의 내적 분열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해 부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려고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에 끝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라는 등등의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해 볼 때가 있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기묘한 현상에 부딪히게 된다. “세계에 끝이 있다”는 답과 “세계에 끝이 없다”는 모순된 답이 둘 다 참인 듯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곤란한 처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모순된 두 명제는 어느 하나가 참이 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어야 함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성이 세계전체의 인식을 다루어 나갈 때는 우리의 상식과는 判異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계 전체의 인식에 있어서는 서로 모순된 두 명제가 다 참인 듯이 보이기에 이성은 어느 것을 참인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어느 것을 거짓으로 판단하여 버려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택할 수도 없고 저것을 택할 수도 없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상태가 우리 이성에 발생하는 것이다. Kant는 세계 전체의 인식에 있어서 이러한 이성의 내적 모순 상태를 해소시키려는 시도에서 안티노미론을 전개했던 것이다.

Kant는 먼저 안티노미가 성립하는 네 쌍의 명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나서 네 쌍의 명제들이 각기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명방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안티노미의 해소를 시도한다. 이 논문은 Kant의 논의 전개방식에 따라서 II장에서는 안티노미의 발생을, III장에서는 안티노미의 증명을, IV장에서는 안티노미의 해소를 다루어 나갈 것이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성의 통일과 이성의 이념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 1. 이성의 통일

Kant는 변증론에서 감성과 오성 이외에 이성이라는 능력을 도입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성은 오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sup>1)</sup>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감성과 오성을 포함한 선천적 인식능력 전부를 지칭한다.<sup>2)</sup> 변증론에서 사용되는 이성의 개념은 가장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Kant는 우선 이성을 추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오성도 추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Kant는 오성의 추리는 직접추리이며, 이성추리는 간접추리라 하여 양자의 기능을 구별하려 한다(B360). 직접추리는 한 전제에서 곧장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추리는 대전제와 소전제라는 2개의 전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삼단논법의 추리를 말한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전제에서 “약간의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함은 직접추리이다. 그런데 “모든 학자는 죽는다”라는 결론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전제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와 “모든 학자는 인간이다”라는 소전제의 매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삼단논법의 추리가 Kant가 말하는 이성추리이다. 그렇지만 간접추리와 직접추리의 차이는 이성과 오성의 구별을 지을만큼 그렇게 확연한 것은 아니다.<sup>3)</sup> 이성과 오성의 차이는 뒤에서 서술될 이성의 순수사용에서 드러난다. Kant는 삼단논법식으로 추리하는 이성의 논리적인 기능에서 이성의 고유한 기능의 단서를 발견한다. Kant가 이성을 어떻게 오성과 분리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Kant 자신이 단서로 삼는 간접추리로 돌아가자.

간접추리에서 사용된 전제들은 결론의 도출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자신은 그 추리에서 증명될 수 없다. 이 전제를 증명하려면 그 전제들을 연역해 낼 수 있는, 더 상위의 전제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도달된 전제들도 자신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전제에서 전제로 나아가는 전제계열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 Kant는 결론과 전제의 관계를 제약된 것(Bedingtes)과 제약(Bedingung)의 관계로 본다. 결론은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된 것이요, 전제는 결론을 연역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론의 제약 즉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결론에서 전제로 나아가는 전제의 계열은 곧 제약된 것에서 제약으로 나아가는 제약의 계열이 된다. 이 계열을 Kant는 ‘올라가는 계열(die aufsteigende Reihe)’이라 하여, 제약된 것에서 이보다 더 하위의 제약된 것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계열(die

1) 우리 인식의 최상능력을 Kant는 보통 오성이라고 하지 이성이라 표현한 예는 드물다. 이점은 현상계를 넘어선 가상계를 오성존재(Verstandeswesen)라고 표현한 데서도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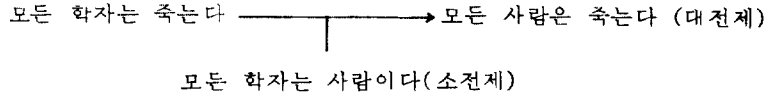
(Heimsoeth, p. 16).

2) ‘순수 이성비판’이라는 책의 제목에 나타난 이성의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Körner, p. 31).

3) 직접추리와 간접추리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위의 예에서 학자라는 개념이 인간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학자는 인간이다’라는 소전제의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에서 직접 ‘모든 학자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의 도출이 어떤 추리에 의존하는 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ennett, p. 258-9).

absteigende Reihe)' 과 구분한다(B 388). 이성은 현재 주어진 결론에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므로 '올라가는 계열' 만을 문제로 삼는다.

이성추리가 형성하는 '올라가는 계열'에서 이성의 의도가 밝혀지기 시작한다. 다시 조금전의 예로 돌아가 보자 :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는 이 추리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일반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모든 동물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가져야 하고,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소전제가 부가되어야 한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는 i)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에 뿐만 아니라 ii) “모든 새는 죽는다,” iii) “모든 고기는 죽는다”라는 동등의 결론에 적용 될 수 있다. i) ii) iii) 은 원래는 각각 분리된 판단들이다. 그런데 이 명제들은 하나의 공통된 전제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점에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는 i) ii) iii) 의 판단들을 연결하여 체계적인 통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서로 고립된 판단들의 통일은, 그 판단들을 삼단논법으로 배열하여 상위의 전제를 발견하고 또 이 상위의 전제를 증명하는 그 이상의 전제를 발견함으로써 증가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궁극의 전제, 즉 무제한적 전제에 이르는 제약계열의 전체를 발견함으로써 통일은 완성된다.

추리의 기능으로서 이성이 기도하는 바로 바로 이러한 판단들의 통일이다. 판단은 오성에서 나온다. 오성은 직관의 다양을 선천적 개념 아래 포섭하여 판단을 산출한다. 이 오성의 판단들에 이성은 통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성에 의한 통일은 '이성추리의 올라가는 계열'을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고 이 계열의 절대적<sup>4)</sup> 전체를 발견함으로써 완성된다. 제약계열의 절대적 전체는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성은 통일을 완성할 욕심에서 다음의 가정을 자신의 원리로 삼는다: “제약된 것(das Bedingte)이 주어질 있으면…… 차례 차례로 종속된 제약의 전체계열(die ganze Reihe einander untergeordneter Bedingungen)이 주어질 있다”(B 364). 이것을 ‘순수 이성의 원리(ein prinzip der reinen Vernunft)’(B364)라고 한다. 이성은 순수이성의 원리를 통해 다양한 오성 판단에 절대적 통일을 부여한다. 이것을 카테고리를 통한 오성의 통일과 구별하여 이성통일이라 한다: “순수 이성은…… 범주에 의해 생각되는 종합적 통일을 절대적인 무제한자에(zum Schlechthinunbedingten) 이르도록 한다. 범주에 의해 표시되는 통일을 오성의 통일(Verstandeseinheit)이라 하듯이, 이런 통일을 현상들에 대한 이성의 통

4) 절대적(absolute)이란 말을 Kant는 특수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B 381-2).

일(Vernunftseinheit)이라 한다”(B 383).

‘카테고리’가 오성의 종합통일을 위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었듯이, ‘제약계열의 절대적 전체성’은 이성의 통일을 위한 ‘이성의 순수한 개념(die reinen Vernunftbegriffe)’이다(B 380). 오성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을 통해 직관의 다양에 통일을 부여하듯이, 이성도 이성의 순수한 개념을 통해 오성 판단의 다양에 통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Kant는 이성의 개념을 오성의 개념인 범주와 구별하여 ‘선험적 이념(transzendente Idee)’이라 한다(B 368).

이제 이성과 오성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단순히 추리하는 능력이 이성이 아니라, 제약계열의 절대적인 전체성의 가정을 통하여 오성의 판단에 절대적 통일을 부여함이 오성과 구별되는 이성의 기능이다. 이것을 Kant는 이성의 순수사용이라 하여 이성의 논리적인 사용과 구별한다. 이성의 논리적인 사용은 제약계열의 절대적 전체성을 가정하지 않은 채로 추리를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성의 논리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이성과 오성은 동일하다. 이성의 순수사용에 있어서만이 이성과 오성은 구별된다. 이념을 통한 통일작용이 이성의 고유한 모습인 것이다. 결국 이성은 이념의 능력(Vermögen der Ideen)이다. 이성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념이 발생하는 것이다.

## 2. 선험적 이념의 체계

이성개념 즉, 선험적 이념에는 3가지가 있다. Kant는 카테고리를 판단형식에서 도출한 것처럼, 선험적 이념을 이성의 추리형식에서 도출한다. 우리에게 가능한 이성추리는 3가지이다: 定言的 이성추리, 假言的 이성추리, 選言的 이성추리. 이러한 이성추리의 형식에 대응하여 제약 계열의 종류도 3가지이다. 그러므로 이성통일이 요청하는 제약계열의 절대적 전체성, 즉 이성의 이념도 3가지이다: “첫째는 생각하는 주관의 절대적(무제약적) 통일, 둘째는 현상들의 제약의 절대적 통일, 셋째는 사고일반의 모든 대상의 절대적 통일”(B 391). 생각하는 주관은 심리학의 대상이고, 모든 현상들의 총괄 즉 세계는 우주론의 대상이며, 생각될 수 있는 만물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제약을 포함하는 것 즉 신은 신학의 대상이다.

순수이성은 선험적 심리학, 선험적 우주론, 선험적 신학에 대해 그 이념을 준다. Kant는 변증론에서 이 세가지를 각각 다른 편에서 다루고 있다. 선험적 심리학은 선험적 오류추리(der transzendente Paralogismus)편에서, 선험적 우주론은 순수이성의 이율배반(die Antinomie der reinen Vernunft)편에서, 선험적 신학은 순수이성의 이상(das Ideal der reinen Vernunft)편에서 다루어 진다.

본 논문이 주제로 삼는 부분은 우주론적 이념과 원칙을 다루는 순수이성의 안티노미편이다.

## II. 안티노미의 발생

‘순수이성의 이율배반(die Antinomie der reinen Vernunft)’에서는 현상들에 있어서 제약의 절대적 전체성 즉 세계라는 이념이 주제가 된다. 이 주제를 Kant는 ‘세계개념(Weltbegriffe)’이라고도 부른다(B 434).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 형이상학은 우주론(Kosmologie)이므로 여기에 대한 이성의 이념을 우주론적 이념이라 하고 이것을 통해 형성되는 원칙을 우주론적 원칙이라 한다.

이율배반 편에서는 이성의 우주론적 원칙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타당함을 증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주장하게 되면 이성엔 반드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 1. 우주론적 이념의 체계

우리는 앞에서 제약계열의 ‘올라가는 계열’과 ‘내려가는 계열’을 구분한 바 있다. 올라가는 계열을 따라 우리인식을 진행시키는 것을 배진적 종합(die regressive Synthesis)이라 하고 내려가는 계열을 따라 내려가며 우리의 인식을 진행시키는 것을 전진적 종합(die progressive Synthesis)이라 한다 (B 438).

이성은 배진적 종합에 있어서 절대적 완결성(absolute Vollständigkeit)을 요구한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배진적 종합의 계열은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4가지의 계열을 형성한다. Kant는 이를 4가지 범주에 대응하여 도출한다.

#### ① 시간, 공간에 있어서 분량의 카테고리

시간과 공간을 더해 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계열이 형성된다.

##### i) 시간계열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열을 형성한다. 과거의 시간은 현재 시간의 조건(Bedingung)이며, 또 이 과거의 시간은 그 보다 선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제약된 것(Bedingtes)이다. 따라서 현재로부터 과거로 저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제약계열이 형성된다.

##### ii) 공간계열

공간은 시간에서와는 달리 스스로 계열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공간의 부분에서 먼 공간의 편으로 공간을 차례 차례 더해감에 따라 계열이 형성된다. 그리고 먼 공간을 가까운 공간의 제약이라 본다면 공간의 제약계열이 형성된다.

#### ② 공간에 있어서 실재성(Realität)의 카테고리

공간의 물체를 계속 분할해갈 때 부분을 전체의 제약으로 본다면 분할에 있어서 제약계열이 형성된다.

#### ③ 현상들 간의 실재적 관계의 카테고리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결과 계열을 형성하는 인과성(Kausalität)의 범주이

다. 원인은 결과의 제약이다. 우리가 결과에서 원인의 편으로 배진적 종합을 진행시키면 원인—결과의 제약계열이 형성된다.

#### ④ 양상(Modalität)의 범주

현존하는 것 중에서 우연적인 것(*das zufällige*)은 언제나 제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연적인 것에서 이를 제약하는 것의 편으로 배진적 종합을 진행시키면 또 하나의 제약 계열이 형성된다.

이성은 위에서 형성된 4 개의 계열에 절대적 완결성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우주론적 이념의 체계가 구성된다 (B 443).

- i) 현상의 합성(*Zusammensetzung*)의 절대적 완결성
- ii) 현상의 분할(*Teilung*)의 절대적 완결성
- iii) 현상의 발생(*Entstehung*)의 절대적 완결성
- iv) 현상의 존재의존성(*Abhängigkeit des Daseins*)의 절대적 완결성

### 2. 우주론적 원칙의 체계

우주론적 이념으로 구성되는 명제들을 우주론적 원칙이라 한다. Kant는 4 가지 우주론적 이념의 각각에 서로 대립하는 2 개의 주장을 대응시켜 우주론적 원칙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Prolegomena, p. 102).

- i) 제 1 명제 {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시초(한계)가 있다.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unendlich*)하다.
- ii) 제 2 명제 {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단순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것은 없다. 모두가 복합적(*zusammengesetzt*)이다.
- iii) 제 3 명제 { 세계에는 자유(*Freiheit*)에 의한 원인이 있다.  
자유는 없고 모든 것은 자연(*Natur*)이다.
- iv) 제 4 명제 { 세계 원인의 계열에 어떤 필연존재(*notwendig Wesen*)가 있다.  
세계 원인의 계열에 필연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우연적(*zufällig*)이다.

이 4 가지 명제에는 각각 형이상학적인 배경이 있다(Körner, p. 115).

제 1 명제에는 세계가 어떤 시점에서 창조되었음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이, 제 2 명제에는 원자(*atom*)나 단자(*monad*)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이, 제 3 명제에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론이, 제 4 명제에는 신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이 배경에 있는 것이다.

### 3. 이성의 자기모순

우주론적 원칙의 체계에 있어서 4 개의 명제는 각각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주장을 가지고 있다. Kant는 2 개의 주장을 定立(Thesis)과 反定立(Antithesis)라 부르고 이 양편의 대립상태에 주목한다. 정립과 반정립은 각각 자신의 주장을 증명함으로써 정당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양편의 증명방식을 보면 자신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편

주장의 불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자신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sup>5)</sup> 즉 간접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양편은 각각 증명된다는 점에서 보면 둘 다 참이요, 서로 상대방의 증명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불가능성이 증명된다는 점에서 보면 둘 다 거짓이다. 서로 모순하는 주장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립과 반정립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참이고, 또 달리 보면 둘 다 거짓이다. 그래서 이 주장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편보다 낫다는 근거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한 채 끝없는 논쟁을 전개해 왔다.

정립과 반정립은 모두 이성의 이념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립과 반정립의 항쟁이란 곧 이성의 내적항쟁을 말하는 것이다. Kant는 우리 이성의 이러한 내적항쟁을 중세 기사들의 무술시험에 비유한다(B450). 기사들이馬上에서 벌리는, 창시합에서는 언제나 공격자가 승리하고 수비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한다. 정립과 반정립의 항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함으로써 모두 승리를 거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받음으로써 모두 패배하는 것이다.

이성은 서로 대립하는 우주론적 원칙 중에서 어느 것도 승인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한다. 우주론적 원칙들은 모두 이성의 산물이기에, 이성은 자기자신의 산물을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혼란과 자기모순 상태가 바로 이성의 안티노미인 것이다. 이성의 안티노미란 이성이 세계 전체에 대해 추리해 나갈 때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모순하게 되는 이성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sup>6)</sup>

### III. 안티노미의 증명

우주론적 원칙들은 4개의 명제와 8개의 원칙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4개 명제가 가진 정립과 반정립의 항쟁들이 논술된 것이다. 정립은 반정립의 불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반정립은 정립의 불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자신을 증명한다. 정립과 반정립은 증명된다는 점에서 보면 둘 다 참이요,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부정된다고 보면 둘 다 거짓이다. Kant는 양 주장의 논증에는 결함이 없다고 한다(Prolegomena, p. 102; Cohen, pp. 677-8). 따라서 이성은 어떤 주장도 인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서 자기 모순에 빠져들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론적 원칙의 4개 명제가 곧 4개 모순이 된다.

이번 장의 전개방식은 각 모순마다 정립과 반정립으로 나누어 먼저 각자의 증명을 요약한 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우주론적 원칙들의 증명에 대한 논의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목적의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Kant가 제시하는 정립과 반정립의 증명에 있어서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어느 것을 배척함으로써 안티

5) 정립과 반정립의 증명방식은 다음장(IV)에서 다루어진다.

6) 안티노미가 이성의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은 Kant가 안티노미(Antinomie)를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단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하다(Bennett, p. 115; Heimsoeth, p. 199).

노미를 해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티노미의 성립과 해소에 대한 Kant의 접근방식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1. 제 1 모순

제 1 모순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의 크기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세계 역사의 지속기간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공간적으로 세계의 크기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제 1 모순에서는 두 개의 테마—시간, 공간—가 다루어진다.

세계의 유한성을 주장하는 정립과, 무한성을 주장하는 반정립의 항쟁에서 이성의 제 1 모순이 확인된다.

#### 1) 정립

“세계는 시간적으로 시초를 가진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한계지어져 있다”(B 454).

#### ① 시간의 측면

i) 세계가 시간상으로 시초(Anfang)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특정의 시점에 멈추어 서서 과거를 돌아다 보면 영원에서부터 흘러오던 무한한 사건의 계열이 그 시점에서 완결된 것이 된다.

ii) 무한한 계열은 계속적 종합(sukzessive Synthesis)<sup>7)</sup>을 통해 완결될 수 없다.

iii) 무한한 사건의 계열이 특정시점에서 완결된다는 것(i)과(ii)는 모순이다. 따라서 무한히 흘러간 세계 계열은 불가능하다. 세계의 시간상의 시초는 세계의 현존에 대한 불가결의 조건이다.

Kant는 자신이 사용하는 무한의 개념을 최대량(Maximum)의 개념과 구분한다. 최대량의 의미에서의 무한 개념은 간단히 모순임이 드러난다. 어떤 양도 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에는 언제나 하나 이상을 보태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B 458). Kant가 생각하는 무한양은 그 양을 더하기 위해 우리가 종합을 계속해 나가더라도 완전히 그 양을 다 더해버릴 수 없는 데 있다.

이것은 양의 무한성을, 아무리 긴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그 양을 헤아리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한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위의 증명으로 돌아가 보자.

「현시점에서 서서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사건의 계열은 저절로 종합되어와서 현재에서 멈춘 것이다. 현시점에서 계열의 종합이 완결된 것이기에 흘러온 과거 시간의 계열은 무한하지 않다. 현 시점에서 완결된 무한이란 자기 모순이기 때문이다. 과거시간의 계열이 무한하려면 현재에서 그 계열의 종합이 멈추어서는 안된다. 즉 현재가 없어야 한다. 현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계열은 유한할 수 밖에 없다. i)의 가정은 세계의 현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의 계열이 유한하다는 것은 결국 세계가 시초를 가진다는

7) 여기서 계속적 종합이란 하나하나 헤아리며 더해나가는 것과 같은 뜻이다(Bennett, p.118).



말과 같다」.

그러나 영원에서부터 흘러온 무한한 시간의 계열이 어떤 시점에 도달한다고 해서 그 계열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무한한 계열은 두 개의 끝점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의 끝점만 가지면 계속 무한일 수 있다. 예를들어 다음의 수열을 보자.

- i) 1, 2, 3, 4, 5
- ii) ..... 1, 2, 3, 4, 5
- iii) ..... 0, 1, 2, 3, 4, 5, .....

i)의 수열은 양쪽 끝점을 가진 것이므로 유한하다.

ii)는 한쪽 끝점을 가졌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무한히 뻗어갈 수 있으므로 무한한 것이다.

iii)은 양쪽 끝점이 없으므로 무한하다. 세계에 시간의 시초가 없을 때 현재까지 흘러온 사건의 계열은 ii)의 수열과 같은 경우이다. 현재의 끝점을 시간의 계열이 가지더라도 그 계열은 무한할 수 있으며 계속적 종합이 이를 완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과거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계열이 유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Kant의 논의는 잘못된 것이다 (Wilkerson, p. 121; Ewing, p. 211).

② 공간의 측면

i) 세계가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세계는 동시에 존재하는 사물들로 구성된 무한한 전체이다. 그런데 세계가 무한한 전체임을 알기 위해서는 무한한 세계의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 종합이 완결되어야 한다.

ii) 세계의 무한한 전체는 계속적 종합을 통해 완결될 수 없다.

iii) 따라서 세계를 무한한 전체라고 간주할 수 없다.

iv) 그러므로 세계는 공간상 한계에 싸여 있다.

위의 증명에서는 iii)에서 iv)로 넘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 “현실적 사물들의 무한한 집합이 ..... 주어진 전체로서 간주될 수 없다”(B 456)는 데에서 “세계는 공간의 관점에서 볼때 무한하지 않고 한계에 싸여 있다”(B 456)는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Broad, pp. 218-9). 외연적 물체가 무한한 것이라면 이를 인식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부분을 더해 나가는 데도 무한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B 456).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시간 동안의 종합이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는 전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세계가 무한히 펼쳐진 전체임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세계가 한계에 싸여 있다는 iv)는 나오지 않는다.

2) 반정립

“세계는 시초나 공간상의 한계를 갖지 않으며 시간에 있어서나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B 455).

① 시간의 측면

i) 세계가 시초를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공허한 시간(ein leere Zeit)<sup>8)</sup>이 존재한 것이다.

ii) 공허한 시간에서는 세계가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허한 시간은 어떤 특정의 시점에서 세계를 발생시킬 원인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iv) 따라서 세계는 시초가 있을 수 없고 과거시간은 무한하다.

증명 ii)를 검토해 보자. 공허한 시간에서 사물의 발생이 불가능한 이유를 Kant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허한 시간의 어떠한 부분도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비존재(Nichtsein)의 조건이 아닌 존재(Dasein)의 구별되는 조건을 그 자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B 455). 공허한 시간에는 ‘아직없음’(noch nicht)로부터 ‘지금’(jetzt)을 구별하는 조건 즉 존재 발생을 가능케하는 시간적 구별(Auszeichnung)이 없다는 것이다 (Heimsoeth, p. 224).

Broad는 Kant가 ii)의 주장에서 암암리에 Leibniz의 충족 이유율(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Broad, p. 215). Broad의 견해에 따르면 ii)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세계가 다른 시점에서와 아니라 왜 하필 어떤 특정의 시점에서 발생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무언가가 공허한 시간 어디에도 없다. 어떤 특정의 순간에서 세계가 시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으므로 세계는 공허한 시간에서 시작할 수 없다.<sup>9)</sup>

## ② 공간의 측면

i) 세계가 공간에 있어서 유한하다고 하자. 그러면 세계는 공허한 공간(in einem leeren Raum)에 의해 한계 지워져 있다. 즉 공허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된다.

ii) 공허한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음은 아무 것도 아닌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iii) 따라서 세계는 공간상 한계를 갖지 않고 무한하다.

위의 증명에서 i)은 바로 앞에 나온 반정립의 시간의 측면의 증명 i)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ii)에서 양자는 갈라진다. 여기서는, 세계가 공허한 공간의 특정의 영역에서 시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 그대신 세계가 공간상 한계가 있다면 세계 전체와 세계 바깥의 공간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간 내에서의 사물들의 관계’(ein Verhältnis der Dinge im Raum) 뿐만이 아니라, ‘사물들의 공간에 대한 관계’(ein Verhältnis der Dinge zum Raum)도 성립되는 것이다 (B 455). 그러나 실은 세계 밖의 공허한 공간은 가능한 관계항이 아니다. 공허한 공간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Unding)이기 때문이다 (Heimsoeth, p. 224). 따라서 공허한 공간에는 세계와 상관할 수 있는 아무런 대상도 없다 (B 457). 공간

8) 공허한 시간이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 어떤 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 시간을 말한다(Benntt, p.159).

9) Bennett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Bennett, p. 159).

은 직관의 형식일 뿐 실제의 대상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공허한 공간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세계의 내부에서만 ‘상대적으로 공허한’ 공간들을 말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은 현상들에 의해 한계지워져있다. 세계 전체를 한계짓는 공허한 공간은 밀받침 없는 假構이다”(최 재희 I, p. 141).

결국 공허한 공간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허한 공간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세계가 시작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 2. 제 2 모순

단순자가 있다는 정립의 주장과 단순자가 없다는 부정립의 주장간의 항쟁에서 이성의 제 2 모순이 확인된다.

### 1) 정립

“세계 내의 모든 복합된 실체는 단순한 부분들로(aus einfachen Teilen)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것이거나 단순한 부분들로 복합된 것만이 실재한다”(B 462).

i) 복합된 실체가 단순한<sup>10)</sup> 부분들로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그리고는 복합된 실체에서 복합되었다는 성질을 제거하는 사유실험을 시도해보자. 가능한 실험의 결과는 3 가지이다. (¬) 단순한 부분이 남든가 (∪) 복합된 부분이 남든가 (=) 아무것도 남지 않든가 이다. 그 외에 (=) 복합(Zusammensetzung)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가능성도 있다.

ii) (=)의 가능성은 폐기된다. 실체간의 결합(Zusammensetzung)은 실체의 본질적인 성질이 아니라 우연적인 성질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들간의 결합은 제거될 수 있다.

iii) (=)의 가능성을 폐기된다. 실체들간의 복합을 제거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실체가 無가 된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iv) (∪)의 가능성은 실험의 전제로부터 폐기된다. 실험에서 복합을 제거하기로 했으므로 복합된 부분은 있을 수 없다.

v) 결국 (¬)의 가능성만이 남는다. (¬)은 i)과 모순된다. 전제 i)에서 자신과 모순된 결론 (¬)이 나왔으므로 i)은 성립할 수 없다.

① i)에서 말하는 사유실험<sup>11)</sup>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합된 실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그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방식을 도외시한 채로 생각해 본다는 뜻이다 (Bennett, p. 163). 그리고 우리의 주시대상이 된 이 부분들에서 다시 복합을 제거하는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계속하면 마지막으로 더이상 분할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도달할 것이다.

② 복합된 실체에서 복합성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 가능성의 문제

10)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실체로 분할되지 않음을 의미한다(Ewing, p. 215).

11) Kant는 이것을 ‘생각 중(in Gedanken)에서 모든 복합을 제거함’이라고 표현한다(B 462).

를 다시 검토해 보자. Kant는 (=)의 가능성을 실체의 정의를 통하여 배제한다. “실체는 그 자체로 존속하는 존재로서(als für sich beharrliche Wesen) 존립해야 한다”(B 462-4). 만약 어떤 것이 진짜 실체라면 다른 어떤 실체의 존재와도 논리적으로 독립해 있다(Bennett, p. 222). 따라서 실체들 사이의 결합관계란 그들에 있어서는 우연적인 관계(ein zufällige Relation)일 뿐이다(B 462). 이러한 실체를 다시 분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2) 반정립

“세계 내의 어떤 복합된 물체도 단순한 부분들로 되어있지 않다. 세계 내에서는 어디서도 단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B 463). 반정립의 증명은 첫번째 문장의 것과 두번째 문장의 것으로 나누어 진다.

① 복합물은 단순한 부분들로 되어 있지 않음.

i) 복합물이 단순한 부분들로 되어 있다고 하자. 복합된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부분들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ii)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모두가 복합된 것이다.

iii) 단순한 부분들도 공간을 차지하는 이상 복합된 것이다. 즉 단순한 부분들도 복합된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i)의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

Kant는 여기서 합성된 실체의 개념을 외연적 대상에만 적용한다. 외연적 대상들 사이의 결합은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기에 결합된 전체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들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외적관계(alles äussere Verhältnis)’는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결합된 것들이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면, 이 결합된 것이 차지하는 공간도 결합된 것의 부분들과 동일한 수의 부분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B 463).

그런데 공간의 무한한 분할 가능성을 Kant는 인정한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그것은 더 작은 부분들로 분할이 가능하다. 공간은 언제나 분할 가능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합된 것이다.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분할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따라서 단순한 것(das Einfache)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내에서 단순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공간성(Räumlichkeit)을 통해 특정지워진다는 데 있다. 공간을 점유하는 실재는 무한한 분할 가능성을 가진 공간의 구조 법칙에 종속해야 한다(Heimsoeth, p. 231-2). 결국 Kant는 공간의 무한한 분할 가능성으로부터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의 무한한 분할 가능성을 추리한다.<sup>12)</sup>

② 세계에 단순한 것은 없음.

i) 이 세계에 단순한 것이 있다고 하자.

ii) 단순한 것은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 즉 공간의 연속적 성질로부터 물체의 연속적 성질에 대한 논의로 환원되어 간다(Smith, p. 490).

iii) 따라서 단순자는 가능한 경험의 총괄로서의 감성계에는 존립할 수 없다.

Kant에 따르면 공간은 외적 직관의 필수적인 형식이다 (B 38). 어떤 대상이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의 조건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공간은 무한히 분할 가능하기에 언제나 가능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다. 따라서 공간을 통해 조직되는 외적 직관은 언제나 복합적이다. 그런데 단순한 것이 경험되려면 단순한 직관으로 주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없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단순한 것의 존재는 어떠한 경험 혹은 지각에서도, . . . 표현될 수 없다. 절대적 단순자(das schlechthin Einfache)는 단순한 이념(eine bloße Idee)일뿐 그것의 객관적 실재성은 어떤 가능한 경험에도 표시될 수 없다”(B 463-5).

### 3. 제 3 모순

원인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에 따른 원인성과 자유에 의한 원인성, 정립은 자연의 원인성과 자유의 원인성을 다 인정하고 반정립은 자연의 원인성만을 인정한다. 정립과 반정립의 증명 근거는 다같이 인과 법칙이다. 정립의 주장에서는 반정립이 인과 법칙과 모순된다는 것이고, 반정립의 주장에서는 정립의 주장이 인과 법칙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Smith, p. 494).

자유원인성의 實在을 증명하는 정립과 不在를 증명하는 반정립간의 항쟁에서 이성의 제 3 모순이 확인된다.

#### 1) 정립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원인성(Kausalität nach Gesetzen der Natur)은 . . . 유일의 원인성은 아니다. 현상을 설명하자면 자유에 의한 원인성을 가정해야 한다”(B 472).

i) 자연법칙에 따르는 원인성만 있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사건의 발생은 선행하는 원인의 사건으로부터 자연법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선행하는 사건의 발생 역시 그보다 선행하는 원인을 필요로 한다. 원인의 계열은 계속 소급되기에 궁극적 원인은 없다.

ii) 궁극적 원인이 없으면 어떠한 사건도 발생할 수 없다.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데서 자연법칙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에 현재라는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궁극적 원인이 있어야 한다. 궁극의 원인이란 절대적 최초의 원인을 말한다. 즉 자유이다.

iii) 현재라는 결과가 있는데도 최초의 원인이 없다함은 자연법칙의 근거인 인과법칙과 모순한다.

인과성의 원칙은 모든 사건에 대한 충분한 원인을 요구한다. 그러한 충분성이 자연의 원인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는 데 위 증명의 핵심이 있다 (Smith, p. 492). 만약 모든 사건이 전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면 항상 2차적 시초만이 있고 결코 1차적 시초(einen ersten Anfang)는 없다 (B 472-4). 왜냐하면 결과는 제약의 올라가는 계열을 따라 계속 선행하는 원인을 요구하기에 원인측 계열의 완결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 계열의 완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초의 원인, 궁극의 원인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충분히 규정된 원인 없이는 (ohne hinreichend a priori bestimmte Ursache)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 자연 법칙은 성립한다”<sup>13)</sup> (B 474).

자연법칙의 성립근거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법칙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함을 인과 법칙은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의 현재의 사건의 경우에도 인과법칙은 그 원인을 요구하고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해서 요구한다. 결국 원인 계열의 전체를 요구한다. 원인계열의 전체만이 주어진 현재 사건이 있기 위한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원인계열의 전체가 있다는 것은 그 계열이 완결된다는 것이다. 계열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최초의 원인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최초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결과가 있는 데도 그 결과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은 결과에는 충분한 원인이 있다는 인과의 원인과 모순한다. 자연법칙의 근거가 되는 인과법칙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초의 원인의 가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 Kant는 최초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계열을 스스로 시작하는 원인의 절대적 자발성(eine absolute Spontaneität der Ursachen)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선험적 자유(transzendente Freiheit)라 한다 (B 474).

## 2) 반정립

“자유란 없고 세계에서의 모든 것은 오직 자연법칙에 따라서만 발생한다”(B 473).

i) 자유가 있다고 하자. 자유의 원인성은 자발적인 발생의 힘이므로 선행상태와의 어떠한 인과적 연관도 가지지 않는 원인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

ii) 그러면 자유는 인과법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인과 법칙이란 어떤 사건이든 이것보다 선행하는 상태와의 인과적 연관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i) 따라서 자유는 어떠한 경험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자유란 내용이 없는 공허한 사유의 산물(ein leeres Gedankending)일 뿐이다.

Kant에 따르면, 우리가 인과법칙을 현상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태의 변화를 경험에 통일할 수 없다.<sup>14)</sup> 인과 법칙을 가지지 않더라도 개개의 현상은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속적 현상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는 인식할 수 없다. 장미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Döring, p. 89-90). 이때 시드는 것이 꽃피는 것에 항상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인과율이다. 인과율이란 선행상태가 후속 상태의 원인임을 나타내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과율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경험에 통일할 수가 없다.<sup>15)</sup> 자연에 있어서 계기하는 현상의 통일은 즉 현상간의 合法的인 관계

13) Wilkerson에 따르면 이 명제는 充足理由律의 변경된 모습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Wilkerson, p. 131).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에 대해 Bennett는 반대한다(Bennett, p. 184-6).

14) 두번째 유추(B 232-56) 참조

15) “모든 변화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에서 생긴다”(B 232).

는 인과법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 E가 그보다 선행하는 상대 E<sub>1</sub>과 인과적 연관을 전혀 갖지 않고 절대적 자발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자. 이렇게 E가 E<sub>1</sub>과의 인과적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E와 E<sub>1</sub>의 경험적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E가 E<sub>1</sub>과 인과적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다. E가 선행적 자유라는 사실은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선행적 자유는 어떠한 경험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B 475).

#### 4. 제 4 모순

현상계에 있어서 개별 존재는 선행하는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약된 것이요 우연적인 것이다. 이 조건은 자신보다 선행하는 조건을 요구하여 조건계열이 형성된다.

이 계열에 있어서 더이상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 필연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 정립의 주장이요 없다는 것이 반정립의 주장이다. 정립과 반정립의 항쟁에서 이성의 제 4모순이 확인된다.

##### 1) 정립

“세계에는 절대 필연적인 존재(ein schlechthin notwendiges Wesen)가 속해 있다. 그 존재는 세계의 부분이든가, 혹은 세계의 원인이든가 이다”(B 480).

i) 모든 사건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조건 아래서만 발생한다.

ii) 세계에는 변화가 있다.

iii) 따라서 이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존재가 있다. 올라가는 계열을 따라서, 변화의 원인존재를 찾아갈때 결국 절대필연인 존재가 있다.

모든 현상의 총체로서의 감성계에는 사건들의 변화가 있다. 그런데 모든 변화는 인과법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음으로써 발생한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인은 언제나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주어져 있는 개개의 존재는 선행하는 조건을 필요로하고 이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다. 선행하는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주어진 개개의 존재는 우연적(zufällig)이다. 그리고 이 조건 역시 이 보다 선행하는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연적인 존재이다. 결국 세계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제약의 올라가는 계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열은 완결되어야 한다.<sup>16)</sup> 계열의 완결을 위해서는 더이상 선행하는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무제약적 존재 즉 절대필연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절대필연의 존재가 없다면 충분한 제약이 없이도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것이다.

현상계에 있어서 변화의 전 계열은 무제약적 존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무제약적 절대필연의 존재가 없다면 그 존재의 결과인 세계 변화의 계열 또한 실재할 수 없게

16) 이 견해는 제 3모순의 정립부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充足理由律의 견해이다(Wilkerson, p. 132).

된다 (B 480).

## 2) 반정립

"절대 필연적인 존재는 세계안에서건 세계밖에서건 실재하지 않는다"(B 481). 반정립의 증명은 필연존재의 실재를 세계안에서 부정하는 것과 세계밖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나뉜다.

### ① 세계안에서 필연존재의 실재부정.

필연적인 존재가 세계안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자신은 선행하는 어떤 원인을 갖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를 발생케 하는 존재가 세계안에 있다는 것이 된다. 이 존재는 절대필연의 존재로서 어떠한 외적 원인을 갖지 않는 무원인(ohne Ursache)의 시초이다.

무원인의 시초는 역학의 법칙(dynamische Gesetz)<sup>17)</sup>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감성계에는 필연존재가 있을 수 없다.

### ② 세계 밖에서 필연존재의 실재 부정

절대 필연적 존재가 세계 밖에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존재는 세계 밖에서 세계의 변화 계열을 시작한다. 시작한다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B 483 주). 하나는 세계의 변화를 발생시킨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세계의 최초 원인 자신이 하나로 존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세계 원인 자신이 상태의 계열을 발생시키는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세계 원인이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세계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세계 내에 들어온 세계 원인이라는 것은 세계 밖에 필연존재가 있다는 전제와 모순된다.

"따라서 세계 안에도 세계 밖에도 (...) 절대 필연적인 존재는 없다"(B 483).

## 3) 정립과 반정립의 증명방식 비교

제 3 모순에서도 정립과 반정립을 추리하는 근거는 모두 동일한 인과법칙이었다. 제 4 모순에서도 정립과 반정립이 모두 동일한 근거에서 추리됨을 Kant는 지적한다(B 487). 과거시간의 전체가 모든 조건의 계열을 포함함이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Ewing, p. 220). 정립은 만약 무제약자가 없다면 모든 조건의 계열들이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정립은 모든 조건의 계열이 우연적임에 주목하여 모든 것은 시간상 선행하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조건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정립은 과거시간의 전체가 조건의 계열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 계열은 모두 선행조건에 의해 의존된 것이기에 절대필연인 존재는 없다고 추리하는 것이다. 정립에서는 제약들의 절대적 전체성에 착안하여 무제약적 필연존재의 개념에 도달했고 반정립에서는 변화 계열내에서 결정되는 항들의 우연성, 피제약성에 착안하여 상호의존의 개념에 도달했다(최 재회 II, p. 171).

## 4) 제 3 모순과 제 4 모순의 비교

제 4 모순의 논증방식은 제 3 모순의 것과 동일하다. 다만 용어만이 바뀐 것 같다(Smith

17) 다른 선행원인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두번째 유추에 어긋난다. 이 역학적 법칙이 모든 가능한 경험 즉 세계를 구성하는 세계대상(Welt-Gegenstände)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Heimsoeth, p. 255).



p. 495). 제 3 모순에서는 무제약적 원인성이 문제가 되었고 제 4 모순에서는 절대 필연의 존재가 문제가 되었다.

Kant 자신은 이 양자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무제약적 원인성(die unbedingte Kausalität)이 아니라 실체의 무제약적 존재(die unbedingte Existenz der Substanz)이다”(B 587).

그러나 무제약적 원인성과 절대 필연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절대 필연 존재는 제 3 모순의 정립에서 주장하는 자발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Findlay, p. 214).<sup>18)</sup>

#### IV. 안티노미의 해소

우리는 III장에서 이성의 우주론적 원칙들간의 항쟁을 지켜보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성의 안티노미를 4 가지 측면에서 증명했다. 정립과 반정립의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들지 않을 수도 없는 이성의 실로 난처한 운명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괴로운 운명에서 이성을 구출해 보고자 한다.

이성의 안티노미를 해소하는 데는 3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정립과 반정립중 어느 한편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려면 양편의 주장 중 어느 하나의 추론에 있어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Kant는 양편의 주장전개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한다 (Prolegomena, p. 103). 따라서 어느 한편 만을 배척할 수는 없다. Kant에게 있어서 이 방식은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양편을 다 거부하는 방법이다. Kant는 양편 주장의 추론 방식에는 결함이 없다고 본다. 그러기에 양편을 다 거부하려면 양 주장의 전제가 가진 오류를 밝히는 방법 밖에 없다 (Prolegomena, p. 104). Kant는 양 주장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정립과 반정립의 논쟁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논쟁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 양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도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이성의 안티노미는 해소된다. 이러한 해소방식을 필자는 批判的 解消라 부르겠다.

셋째, 양편을 다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양편의 주장은 대립적인 것이므로, 그대로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서로의 주장을 누구러 드러서 더 이상 충돌하지 않도록 타협한다면 둘 다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한 이성의 안티노미는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해소 방식을 필자는 妥協的 解消라 부르겠다.

Kant는 비판적 해소의 방법을 통해 4 가지 이성의 우주론적 자기 모순을 해소한다. 그리고 나서 Kant는 제 3 모순과 제 4 모순에 대해서는 타협적 해소의 방법도 가능성을 밝힌

18) 제 3 모순과 제 4 모순의 차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가 많다(최 재희 I, p. 496; Wilkerson, p. 133).

다. 여기에서 실천이성의 영역이 확보된다.

이제 Kant가 제시하는 해소의 원칙에서부터 논의를 진행해 보자.

### 1. 해소의 원칙

Kant는 안티노미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로서 선험적 관념론을 제시한다. Kant가 제시하는 선험적 관념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 369; B 518-9; Wilkerson, pp. 180-98; Findlay, pp. 1-28).

- i) 경험은 주관자체(선험적 주관)와 물 자체와의 상호관계에서 성립한다.
  - ii) 주관은 경험에 공간, 시간, 카테고리라는 요소를 부여한다. 공간, 시간, 카테고리는 물 자체가 가진 성질이 아니라 주관이 부여하는 선험적 인식요소이다.
  - iii) 따라서 경험의 대상은 주관의 인식 방식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의 인식 장치에 의해 구성된 현상이다.<sup>19)</sup>
  - iv) 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 방식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인식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물 자체는 현상의 근저에 있는 것으로 가정될 수는 있다.
- 선험적 관념론에 따르면 주관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주관은 주관이 가진 선험적 요소를 경험에 부여하기에 대상은 그 자체대로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대상의 개념은 이미 그 자체로 주관의 인식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대상은 언제나 주관이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방식과는 무관한 어떤 것을 가리키므로 그것은 인식될 수 없다. Melnick은 물 자체의 의미를 ‘대상 개념의 비인식적 개념(non-epistemic concept)’으로 정의하고 있다 (Melnick, p. 152). 물자체가 대상의 비인식적 개념이라면 우리가 현상만을 알고 물자체는 모른다는 것은 명백한 동어반복이다: 즉 대상은 알려지는 한에 있어서만 알려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Schrader, p. 173). 우리에게 있어서 대상은 바로 그 개념이 주관이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임을 포함하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대상은 현상<sup>20)</sup>이다. “따라서 경험의 대상은 결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B 521).

19) Kant는 경험의 대상이 완전히 주관에 의해 전부 다 구성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Kant는 대상을 형상과 질료라는 두 측면으로 구별하여 대상의 형상만이 주관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대상의 질료는 물자체로부터 주관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Kant는 자신이 제시하는 선험적 관념론을 Berkeley나 Descartes에 있어서의 질료적 관념론(der materiale Idealismus)과 구별하여 형상적 관념론(der formale Idealismus)이라 한다(B 519 주; Wilkerson, pp. 187-8).

20) Kant에 있어서 현상(Erscheinung)의 의미는 여기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규정하는 사유로부터 분리된 단순히 직관된 것(das Bloss-Anschauliches)이라는 뜻으로도 드물긴 하지만 사용되는 것이다 (Heimsoeth, p. 8 주 10; Prauss, pp. 15-25 참조).

선험적 관념론에 있어서 대상은 곧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 있어서만의 것, 즉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도 역시 현상이다. 비판적 해소는 이 명제를 자신의 원칙으로 삼는다.

그런데 선험적 관념론은 불자체를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보자. 대상을 현상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현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의 개념(the concept of a thing-other-than-as-it-appears)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Chipman, p. 491). 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영역 밖에 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문이며 그것이 존재하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 자체가 현상의 원인인가도 우리의 인식 영역 밖에 있다. 물 자체가 우리 인식 영역 밖에 있으므로 물 자체의 세계가 존재하고 현상계의 원인이라는 가능성마저도 우리 인식이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물자체의 적극적인 인정의 가능성<sup>21)</sup>에 타협적 해소의 원칙이 있다.

비판적 해소는 세계란 곧 우리 인식의 세계일 뿐이라는 선험적 관념론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타협적 해소는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또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선험적 관념론의 묵시적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sup>22)</sup>

## 2. 비판적 해소

안티노미의 비판적 해소에 앞서서 우주론적 원칙들의 항쟁을 요약해 보자.

제 1모순에서는 시간계열과 공간계열의 유한성과 무한성의 대립이 있다. 현재로부터 과거로 올라가는 시간계열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곳으로 나아가는 공간계열이 유한하다는 주장이 정립이요, 무한하다는 주장이 반정립인 것이다. 계열이 유한하다는 것은 시초가 있다는 말이고 무한하다는 것은 시초가 없다는 것이다.

제 2모순에서는 공간의 분할계열의 유한성과 무한성의 대립이 있다. 분할계열이 유한하다는 것이 정립의 주장이요, 무한하다는 것이 반정립의 주장이다. 분할계열이 유한하다함은 단순자가 있다는 것이요, 무한하다함은 단순자가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제 3모순과 제 4모순에서는 결과-원인계열의 유한성과 무한성의 대립이 있다. 이 계열이 유한하다함이 정립이요, 무한하다함이 반정립이다. 결과-원인의 계열이 유한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필연존재가 있어야 하고 무한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우주론적 주장들의 항쟁은 4가지가 모두 세계(계열)의 유한성과 무한성

21) 한 단서는 물자체 개념이 「순수 이성비판」 내에서 3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 (1) 선험적 감성론에서는 물자체 개념이 우리 감성을 촉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물자체의 존재는 소극적으로만 주장된다.
- (2) 선험적 분석론에서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는 한계개념으로 사용된다.
- (3) 선험적 변증론에서는 물자체의 존재가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유의 가능성을 위해 Kant는 물자체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자체의 의미는 크게 바뀐다, (한 단서 I; 한 단서 II).

22) Wilkerson은 비판적 해소의 원칙을 현상론(phenomenalism)이라고 하고 타협적 해소의 원칙을 가상론(noumenalism)이라 한다(Wilkerson, p. 134).

에 관한 것들이다. 순수 이성의 안티노미란 결국 세계의 유한성과 무한성에 있어서의 이율 배반을 말하는 것이다.

정립과 반정립의 주장 전개에 있어서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Kant는 본다. 따라서 양편 주장의 논리전개상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는 안티노미를 해소할 수 없다. 이성의 안티노미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양편 주장의 무의미함을 간파함으로써 논쟁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립과 반정립의 주장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면 이성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이성은 안티노미에서 구출될 수 있다.

정립과 반정립의 주장들에는 공통적인 가정이 숨어 있다. 즉 제약된 것에서 제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약계열이 자체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가정이다 (B 525). 계열이 자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에 정립과 반정립은 그것이 유한한가, 무한한가를 묻는 것이다. 만약 세계가 우리의 경험적 배진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라면 이성의 안티노미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정립과 반정립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면서도 다 참이기도 하고, 다 거짓일 수도 있으므로 이성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안티노미 해소의 문은 우리가 선형적 관념론이라는 열쇠를 가짐으로써 열려진다. 세계가 물자체라면 안티노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선형적 관념론에 따르면 세계는 물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세계가 인식 주관의 배진적 종합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계는 그 자체 유한한 전체(ein an sich endliches Ganze)도 그 자체 무한한 전체(ein an sich unendliches Ganze)도 아니다 (B 533). 세계 계열의 길이는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진적 종합의 확장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에 이 세계 계열은 이 계열 개념의 유일한 근거인 가능한 경험의 배진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다”(B 546 주). 세계가 현상이라는 데에서 정립과 반정립은 모두 틀린 것임이 드러난다. 정립의 주장처럼 세계는 유한하지 않다. 우리가 인식을 제약의 올라가는 계열을 따라 전진시켜 나갈 때, 어떤 한 항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인식을 전진시킬 수 있다. 인식의 확장에 따라 세계 계열의 크기는 증가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길이의 양을 유한한것으로 고정시킨 정립을 틀렸다. 반정립의 주장처럼 세계는 무한한 것도 아니다. 특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경험적 종합이 도달한 세계계열의 길이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특정의 순간에서 보면 세계의 크기는 유한하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인식을 전진시킬 수 있으므로 세계는 계속 늘어난다. 세계계열의 크기는 유한하다고도 무한하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가능적으로 무한 할 뿐(nur potentialiter unendlich)’이다 (B 444). 이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 4 가지 관점에서 형성된 세계 계열의 길이는 우리 배진적 종합 계열의 길이와 일치한다.

ii) 배진적 종합 계열의 길이는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다만 가능적으로 무한하다.

iii) 따라서 세계 계열의 길이도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다만 가능적으로 무한하다.

iv) 그러므로 세계의 유한성을 주장한 정립과 무한성을 주장한 반정립은 틀렸다.

정립과 반정립은 세계 자체가 주어저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전체에 대해 대답하는 주장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의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세계는 전체로서 우리 인식과는 무관하게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인식의 진행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립과 반정립은 그들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려면 그들의 전제를 수정해야 한다. 수정된 전제 위-현상으로서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주장 모두가 틀린 것이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무의미한 것이다. 이미 세계는 고정된 크기가 아니라는 수정된 전제위에서는 그것이 유한한가 무한한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립과 반정립의 주장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므로 대답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립과 반정립의 모순 대답에서 발생했던 이성의 안티노미는 양편 주장의 대답 자체가 해소됨으로써 이성의 안티노미 역시 해소되는 것이다.

Kant는 안티노미에서, 자신이 선형적 감성론에서 제시한 선형적 관념론이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한다(B 534-5).

i) 만약 세계가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면 세계는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이다.

ii) 그러나 세계는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유한성을 주장하는 정립은 반정립에 의해 부정되고 무한성을 주장하는 반정립은 정립에 의해 부정되기 때문이다.

iii) 결국 세계는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세계는 물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다.

iii)의 주장은 선형적 관념론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ii)에서의 안티노미를 해소하는 방법은 세계가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수 밖에 없다.

즉 세계는 물자체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해야만이 이성은 안티노미에서 헤어날 수 있다. 선형적 관념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티노미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형적 관념론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 3. 타협적 해소

#### 1) 수학적 안티노미와 역학적 안티노미

Kant는 제 3, 제 4 모순에서는 타협적 해소의 방법도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 1, 제 2 모순에서는 타협적 해소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 1, 제 2 모순을 Kant는 수학적 안티노미(mathematische Antinomie)라 하고 제 3, 제 4 모순을 역학적 안티노미(dynamische Antinomie)라 하여 구별한다(B 556-60). 역학적 안티노미에서 인정된 타협적 해소의 가능성을 수학적 안티노미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양 안티노미가 관여하는 계열의 성격차이에서 온다. 수학적 이율배반에 있어서는 계열을 형성하는 각항들이 동종적(gleichartig)이다(B 556). 하나의 공간적인 부분에서 더 먼 부분으로 진행하든 더 작은 부분으로 진행하든, 하나의 시간적인 지속에서 더 긴 시간적 지속으로 진행하건 간에 거기서 만나는 각 항을 언제나 동종적인 것이다.

역학적 안티노미에서는 사정이 이와는 다르다. 역학적 안티노미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인과관계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의 상태를 그것의 원인에서 도출하거나 필연적 존재에서 우연적 존재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약이 제약된 것과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원인이 결과와 닮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B 559).

수학적 이율배반에서 각항들이 동종적이어서 피제약자가 현상이면 그것의 제약도 현상이고 결국 제약의 전체도 모두 현상이다. 그런데 주어진 개개의 시간적인 사건이나 공간적인 물체는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 전체도 현상이다. 현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는 유한한가 무한한가를 물을 수 없다. 유한, 무한의 질문은 세계가 물자체인 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할 수 없는 대상을 착각하여 물자체인 것으로 오인하고 던진 정립과 반정립의 물음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정립과 반정립 모두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계열의 동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수학적 이율배반은 비판적 해소만이 가능하다.

역학적 이율배반에서는 피제약자가 현상이더라도 제약은 현상일 수도 있고 현상계열 외부에 있을 물자체 일 수도 있다. 만약 제약이 현상일 경우에는 반정립이 타당하고, 제약이 물자체일 경우에는 정립이 타당하도록 타협할 수 있다면 양편은 다 참일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참이므로 둘다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 타협적 해소가 성립하는 것이다. 역학적 안티노미는 계열항들의 異種性이라는 특징 때문에 타협적 해소도 가능한 것이다.

## 2) 제 3 모순

자유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만약 자유가 가능하더라도 자연원인성, 자연법칙의 보편성과 조화할 수 있는가? Kant는 자연과 자유와의 조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정립과 반정립이 다 참일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정립과 반정립이 다 참이니 둘 다를 인정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성을 자기 모순에서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 ① 경험적 성격과 가상적 성격

Kant에 따르면 감성계의 모든 대상은 2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경험적 성격(ein empirischer Charakter)과可想적 성격(ein intelligibler Charakter) (B 567). 경험적 성격이란 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과적 성질의 총체를 말한다 (Broad, p. 276). 인과적 성질(causal property)은 관찰될 수 있는 변화의 용어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이 변화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역시 관찰용어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예를들어 금의 경험적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열거해 보자. i)첫째 왕수(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의 혼합액)에서 용해된다, ii)특정의 밀도를 가진다, iii)어떤 온도에서 끓는다, iv)어떤 화학적 구조를 갖는다 등등. 금은 이러한 성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Kant는 경험적 성격이란 물자체 갖는 어떤 성질의 현상임에 틀림없다고 한다. 이 주장은 경험적 실체는 곧 물자체의 현상이다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현상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험적 대상(ein transzendentaler Gegenstand)이 근저에 놓여서 현상을 단지 표상으로 규정한다”(B 566). 현상의 근저에 놓인 물자체가 가진 어떤 성질을, 경험적 성격과 구분하여 可想的 성격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첫번째 성격(경험적 성격)을 현상중에 있는 사물의 성격이라 부르고 두번째 성격(가상적 성격)을 물자체의

성격이라 부를 수 있다”(B 567).

S를 어떤 경험적 실체라 하고 S로 자신을 드러내는 물자체를  $\Sigma$ 라하자 (Broad, p. 276-7). 그러면 S의 가상적 성격이란  $\Sigma$ 의 성질을 의미한다.  $\Sigma$ 의 성질이 S의 경험적 성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Sigma$ 는 물자체이므로 우리는 전혀 그것의 성질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의 성질 즉 가상적 성격은 전혀 알 수 없더라도 가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선험적 대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더라도 모든 현상의 근거에 가정해야 했던 것과 같다 (B 568).

자, 이제 한 사건의 원인성으로서 경험적 성격과 가상적 성격을 동시에 다 인정할 수 있다는 칸트의 논의로 들어가 보자. S의 한 경험적 사건을 e라 할 때 e는 S가 가진 어떤 경험적 성격에서 나온다. 이점에서 e는 S의 경험적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S의 경험적 성격은  $\Sigma$ 의 성격 즉 S의 가상적 성격의 현상이다. 이 점에서 보면 e는 S의 가상적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i)  $\Sigma$ 의 성격 즉 S의 가상적 성격  $\rightarrow$  ii) S의 경험적 성격  $\rightarrow$  iii) e

여기서 i)과 ii)의 연결을 시간적 선후로 볼 수 없다. 가상적 성격은 물자체의 성격이므로 시간, 공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적 성격 자신이 그보다 선행하는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든지, 경험적 성격의 선행하는 원인이라든지 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상적 성격은 시간질서를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의 원인은 동시에 두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경험적 성격 즉 경험적 원인이요 또 하나는 가상적 성격 즉 가상적 원인이다. 가상적 성격은 선행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선험적 자유이다. 즉 어떤 경험적 사건이 경험적 실체가 가지는 경험적 성격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선행사건에 의해 자연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성격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자체의 성질 즉 가상적 성격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경험적 사건은 가상적 성격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개의 원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는 경험적 성격에서 나온 경험적 원인성이요, 또 하나는 가상적 성격에서 나온 자유원인성이다. 경험적 성격이 가상적 성격과 같은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물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전부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가정할 권리는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험적 대상에 그것이 현상하는 성질 이외에 현상이 아니될 원인성을 부여함을 거부할 수 없다”(B 566).

행위하는 주판 역시 경험적 대상으로 주판의 행위는 경험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주판의 행위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다른 현상과 연결된다. 이 연결을 통해 주판의 행위도 자연질서라는 계열의 한 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행위하는 주판에 대해서도 가상적 성격을 허용해야 한다 (B 567). 보통 인식하고 행위하는 나(I<sub>1</sub>)는 반성하는 나(I<sub>2</sub>)의 의식에 주어질 수 있는 경험적 자아이다. 이 반성하는 나(I<sub>2</sub>)도 또한 나(I<sub>3</sub>)의 자기의식에 주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나의 계열은 끝없이 진행될 수 있다. I<sub>1</sub>, I<sub>2</sub>, I<sub>3</sub>, ... 이 계열

의 최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나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Findlay, p. 143 참조).

따라서 인간의 행위도 경험적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험적 자아의 경험적 성격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현상 계열속으로 들어간다. 즉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그러나 근원적 나의 가상적 성격에서 나왔다고 보면 자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 ② 자연과 자유의 조화

정립에서는 자유원인성을 인정하고 반정립에서는 자연원인성만을 인정한다. 이 양편의 타협은 동일한 결과에서 두가지 원인성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어떤 경험적 사건이든 인과 계열에 포함되어 있다. 현상계의 모든 사건은 오직 자연법칙에 따라서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 점에서 보면 자연원인성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 계열의 각항들이 물자체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물자체의 성질 즉 가상적 성격에 의해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인과계열의 각항들은 그보다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가상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상계는 인과법칙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가상적 원인은 현상계의 자연원인성을 조금도 파괴하지 않고도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원인성과 자유원인성은 단지 관점의 차이 일뿐, 실제로 자유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설사 영향을 준다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식 영역 밖에 없다.

결국 동일한 결과, 동일한 행위에 있어서 자연원인성과 자유원인성은 그 결과, 그 행위를 가상적 원인(intelligible Ursache)에 대조시키느냐 경험적 원인(sensible Ursache)에 대조시키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모순없이 발견될 수 있다(B569). 따라서 자유와 필연은 조화될 수 있다.

### ③ 실천이성의 영역확보

Kant는 경험적 성격과 가상적 성격의 구분을 인간 존재 특히 인간의 의지에 적용한다. Kant에 의하면 자유의 실천적 개념은 선험적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는 선험적 개념에 자유의 실천적 개념이 기인해 있다”(B 561). “선험적 자유(transzendente Freiheit)의 폐기는 실천적 자유(praktische Freiheit)를 소멸케 할 것이다”(B 562).

선험적 자유란 ‘한 상태를 자신에게서 개시하는 능력’을 말했다 (B 561). Kant는 실천적 의미의 자유를 감성의 동인<sup>23)</sup>에 의하지 않고 의지를 결정하는 자유라 규정한다: “실천적 의미의 자유란 감성의 동인(Antriebe der Sinnlichkeit)에 의한 강제로부터 의지 결정(Willkür)이 독립되어 있음을 말한다”(B 561-2).

인간의 의지에는 동물과는 달리 감성의 동인에 의한 자연 원인성 외에 또 하나의 원인성 즉 자유원인성이 있다 (B 562). 다시말해 인간이 의지를 결정하는 데는 자연원인성도

23) 감성의 동인이란 욕망, 배고픔, 성적 충동같은 감성적 충동을 지시할 뿐만이 아니라 권력, 지식욕 같은 정신적 충동도 지시한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모든 충동과 욕망이 실천적 의미의 감성에 속한다.(최 재희 I, p. 156).



있고 자유원인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자유로이 개시할 수 있는 자유원인성은 인간의 어떤 능력에 속하는가? Kant는 이성에 속한다고 한다. “이성이 원인성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위하는 행위자들에게 법칙으로서 부과되는 명령(der Imperativ)에서 명백하다”(B 575). 그런데 여기의 이성은 실천 이성이다. 실천이성은 사변이성 혹은 이론이성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행위를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산출하는 원인성이다(B 578). Kant가 여기서 우리의 이성능력을 이론의 측면과 실천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천의 영역은 자연에 관한 사실의 인식이란 영역과는 완전히 다르다(B 575). 우리가 사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탐구한다면 거기서 자연에 관한 규칙과 질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탐구한다면 사실에 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행위를 실천적 관점에서의 이성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자연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규칙을 발견할 것이다”(B 578).

Kant는 순수이성비판 재판의 머리말에서 인식을 이론적 인식과 실천적 인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성의 인식은 두가지 방식에서 대상과 관계할 수 있다. 외부에서 주어져야만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과, 대상을 실현하는(wirklich zu machen) 방식이다. 전자는 이성의 이론적 인식이요, 후자는 이성의 실천적 인식이다”(Bx). Kant는 우선 이론적 인식을 현상계에 제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변적 인식을 현상계를 넘어서서 초현적인 세계, 즉 가상계에까지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따라서 인과법칙이 미치는 세계가 현상계에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과법칙은 자유가 머무르고 있는 가상계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사물과 물자체 그것으로서의 대상을 구별하여 우리의 사변적 인식을 현상계에 제한하여 두지 않았던들 자유는 구제될 수 없다(Bxxvii). 왜냐하면 인과법칙이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자연의 기계성(Naturmechanismus)이, 만약 현상과 물자체의 구별이 없다면 모든 사물에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ant는 자유를 가상계에 속한 것으로 봄으로써 현상계를 지배하는 자연필연성의 專制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유와 자연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아무런 방해없이 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덕론(die Lehre der Sittlichkeit)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자연학(Naturlehre)도 제 자리를 지킨다”(Bxxix). 실상 비판에 있어서 사변이성의 활동 무대를 현상계에 제한함은 사실상 실천 이성의 독자적인 활동무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sup>24)</sup>

24) Kant는 자신이 「비판」에서 행한 작업은 2가지 효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1) 소극적 효용으로서 사변이성이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효용을 가진다.
- (2) 사변이성 영역의 제한을 통해 실천이성의 사용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방해물 없앴으로써 순수이성에 실천적인 사용이 있음을 보여주는 적극적 효용을 가진다.

제 3모순의 해소 작업에서 나온 자유와 필연의 화해는 이론 이성의 영역과 실천이성의 영역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sup>25)</sup> 실천이성의 활동 무대는 Kant의 제 2 비판에서 전개된다.

### 3) 제 4 모순

제 4 모순의 해소는 제 3 모순의 해소와 원칙적으로 같다. 정립에서 주장하는 필연존재는 현상계열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감성계에는 어떤 사물이든 모두 다른 존재에 의존하여 우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성계에는 어느 곳에도 필연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성계열 전체에 대해서는 무제약적 필연존재가 생각될 수도 있다. 무제약적 필연존재가 현상계열 외부에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제약적 존재가 가상계에 존재한다면 감성계의 원인-결과 계열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그 존재는 감성계의 인과 계열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B 588-9).

여기서 필연존재가 존립함을 주장하는 정립의 주장과 필연존재의 존립을 부정하는 반정립의 주장 사이에 타협 가능성이 생긴다. 즉 정립의 주장은 가상계를, 반정립의 주장은 현상계를 타당 영역으로 삼는다면 타협될 수 있는 것이다.

타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편은 서로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필연 존재의 존립을 주장하는 정립의 명제가 반정립의 영역인 현상계로 침범하게 되면 이는 전혀 근거없는 독단이 될 것이다. 또 필연존재의 존립을 부정하는 반정립이 자신의 구역인 현상계를 넘어서서 가상계까지 침범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學의 주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의 사물 전체가 가상존재 속에서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B 590). 정립과 반정립의 양편이 각자의 구역을 지킨다면, 이 양측의 주장은 아무런 모순도 발견되지 않고 양자가 다 참일 수 있다(B 590). 이렇게 되어 이성의 안티노미는 타협적으로 해소된다.

제 3 모순의 타협적 해소에서는 사물들은 제약의 계열내에 들어갔고 사물의 원인성만이 가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제약적 필연 존재는 초세계적 실재로서 감성계의 계열 외부에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 존재는 초감성적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 4 모순의 논의란 우주론적인 것이 아니라 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Smith, p. 519). 이에 대해서는 '순수 이성의 이상' 편에서 다루어 진다.

25) 이론 이성과 실천이성의 영역구분을 Walsh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 이론이성은 경험을 넘어서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가질 수 없다.
- (2)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현상 뿐이라는 「비판」의 증명은 경험을 넘어서는 곳에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 (3)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곳에 대해서는 실천적 견지에서의(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일종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Walsh, p. 373).

## V. 맺 음 말

우리는 이제까지 순수 이성의 안티노미와 그것의 해소를 Kant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이성의 안티노미는 세계의 유한성과 무한성을 주장하는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ii) 그러나 세계는 우리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인식되는 현상일 뿐이다. 우리의 인식에 주어지는 현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립자체의 해체에 따라 이성의 안티노미도 해소된다.

iii) 우리의 인식에 주어지는 세계가 현상으로서의 세계(현상계)라면, 우리의 인식에 주어지지 않는 세계(가상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3, 제 4 보순에서는 정립의 구역을 가상계에 한정시키고, 반정립의 구역을 현상계에 한정시킴을 통해 양편의 대립을 피할 수 있다. 양자 대립의 해체에 따라 이성의 안티노미도 해소된다.

iv) ii)와 iii)에서 선험적 관념론이 간접적으로 증명되고<sup>26)</sup> iii)에서 이론 이성의 영역과 구분된 실천이성의 영역이 확보된다.

Kant가 Prolegomena에서 슬회하고 있듯이, 세계인식에서 발생했던 이성의 안티노미는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다. 이 현상은 너무나 충격스러운 것이어서 Kant의 철학을 독단의 선잠에서 깨워일으켜 이성의 비판작업으로 몰고 갔다고 한다(Prolegomena, p. 101).

Kant는 이성의 비판작업을 통해 우리인식의 성립과정과 한계를 밝혀 내었다. 우리 인식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직관의 다양을 개념을 통해 종합통일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 인식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의 직관에 주어지는 대상까지이다. 물자체는 우리의 직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sup>27)</sup> 우리의 인식능력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에 물 자체에 관한 어떤 주장도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는 증명될 수도 부인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물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성은 선택의 곤란에 봉착하게 된다. 더 나아가 각각 참인듯이 보이는 두 개의 서로 모순된 명제가 대립하고 있을 때 우리 이성의 안티노미는 최고점에 다다르게 된다. 결국 우리가 물 자체에까지

26) Kant는 ii)의 비판적 해소에서 선험적 관념론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고 했지만 iii)의 타협적 해소에서는 이러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협적 해소가 물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선험적 관념론의 묵시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적 해소 역시 선험적 관념론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Wilkerson, p. 133 참조).

27) 물자체가 가진 의미가 여러가지이라 하더라도 그 공통점은 직관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Kant가 물자체를, 단지 이성에 의해 표상되지만 할 뿐 경험에서 적절한 대상을 갖지 못하는 이념과 동일시하기도 한다는데서 더욱 분명하다(Cohen, pp. 671-2 참조).

우리 인식을 확대한다면 이성의 안티노미는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자체 역시 우리 직관에 주어지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립과 반정립이 자체로서의 세계 전체에 관해 서로 모순된 인식적 주장을 전개할 때 우리 이성은 어느것을 취해야 할지를 모르는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Kant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세계에 관한 명제에 대해서만 이성의 안티노미를 논했지만 영혼, 신등에 대해서도 안티노미는 발생할 수 있다(최 재희], p. 134, p. 172). 영혼이나 신의 존재도 우리의 직관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ant에 따르면 안티노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모순된 명제의 대립자체가 궤변적임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물자체는 아니라면 물 자체에 대한 모든 주장은 원래 성립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주장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주장들의 대립자체도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성을 곤경에 몰아넣었던 선택의 문제도 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물자체와 현상의 구별도 없이 어디든 우리 인식이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와 그 양자를 구별하여 우리 인식의 범위를 현상계에 한정지워야함을 주장하는 견해를 비교해 보자. 앞의 견해를 Kant는 선험적 실재론(der transzendente Realism)이라 하고, 뒤의 견해를 선험적 관념론(der transzendente Idealism)이라 한다(A 369; A 491). 선험적 실재론은 우리 인식을 물자체에도 허용하는 것이 되기에 여기서는 이성의 안티노미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선험적 관념론에서는 아예 물자체를 우리 인식의 범위에서 배제하기에 이성의 안티노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험적 관념론에서는 현상의 세계에만 우리의 인식을 제한하기에 서로 대립된 명제들의 선택은 경험의 시금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모순된 견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느 하나가 참임을, 그리고 다른 어느 하나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성을 혼란속에 몰아 넣을 선택의 문제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성의 안티노미라는 문제를 촛점으로 맞추고 보면 선험적 실재론과 선험적 관념론의 우열이 분명하게 된다. 선험적 실재론은 이성을 안티노미에 빠지게 하지만 선험적 관념론은 이성의 안티노미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Kant는 이 점에 자신이 제시한 선험적 관념론의 인정근거가 있다고 한다.

또 Kant는 자신의 선험적 관념론을 받아들여야만이 도덕과 종교의 세계가 인식의 세계와 마찰없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고 한다. 물 자체와 현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므로, 물 자체의 세계에 있어서의 실천적 명제와 현상계에 있어서의 이론적 명제는 양립가능하다. 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명제도 인식의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그 명제가 우리의 실천적 생활에서 유용한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천적 명제들의 타당성은, 사실의 설명에서 타당성을 구하는 이론적 명제들의 경우와는 다른 곳에서 구해지는 것이다. 제 3, 제 4모순의 정립에서 주장되는 자유원인성과 필연존재는 현상계에는 존립할 수 없으나 가상계에서는 존립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들의 존립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식이 배제할 수 있는 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Bxxvi). 자유와 필연존재의 존립 가능성에서 도덕과 종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Kant는 제 3, 제 4 모순의 타협적 해소에서 인식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도덕과 종교의 세계를 건설할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결국 Kant는 안티노미의 해소를 통해 자신의 비판철학에 대한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론 이성과 분리된 실천이성의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Kalin, p.160).

### 참 고 문 헌

- 최 재희(Ⅰ).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연구」. 서울 : 박영사, 1981.
- 최 재희(Ⅱ). “칸트의 이율배반에 관한 한 연구.” 「세무대학 논문집」, 제 1집(1981), 159-192.
- 한 단석(Ⅰ). “Kant 철학에 있어서의 물 자체(Ding an sich)의 개념.” 「서우 최 재희 박사 환려키념 논문집」. 서울 : 청림사, 1975. pp.97-106.
- 한 단석(Ⅱ). “Kant 철학에 있어서의 물 자체(Ding an sich)의 개념(1)” 「전북대 논문집」, 제 17집(1975), 1-31.
- Bennett, J. *Kant's Dialectic*.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Chipman, L. “Things in Themselv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33 (1973), 489-502.
- Cohen, H. *Kants Theorie der Erfahrung, Dritte Auflage*. Berlin, 1918.
- Döring, W. O. 「칸트 철학 이해의 길」. 김 용정 역, 서울 : 도서출판 새발, 1979.
- Ewing, A. C.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 Findlay, J. N. *Kant and The Transcendental Object : A Hermeneutic Study*. Oxford : Clarendon Press, 1981.
- Heimsoeth, H. *Transzendente Dialektik : Ein Kommentar zu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Berlin : Walter de Gruyter & Co., 1966.
- Kalin, M. G. “Idealism against Realism in Kant's Third Antinomy,” *Kant-Studien*, Vol. 69 (1978), 160-169.
-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 Felix Meiner Verlag, 1956.  
「순수이성비판」. 최 재희 역. 서울 : 박영사, 1981.
- Kant, I.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Hamburg : Felix Meiner Verlag, 1969.  
「비판 철학 서론」. 최 재희 역. 서울 : 박영사, 1980.
- Körner, S. *Kant* (Penguin Books). London : Cox & Wyman Ltd., 1955.
- Melnick, A. *Kant's Analogies of Experienc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Prauss, G. *Erscheinung bei Kant: Ein Problem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71.
- Schrader, G. "The Thing in Itself in Kantian Philosophy," in R. P. Wolff, ed. *Kan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York, pp. 172-188.
- Smith, N. K. *A Commentary to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2nd e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23.
- Walsh, W. H. "Kant and Metaphysics," *Kant-Studien*, Vol. 67 (1976), 372-384.
- Wilkerson, T. E.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 Commentary for Students*.  
Oxford: Clarendon Press, 1976.

※ 일러두기

- 1) 인용 서적은 저자 및 인용 면수만 본문 속에 괄호로 밝혔음. 서명 및 출판사등은 참고문헌란 참조 바람.
- 2) Kant 의 'Kritik der reinen Vernunft' 는 초판을 A, 재판울 B 라 표시했음.
- 3) Kant 의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은 Prolegomena 로 표시했음.